

두산중공업의 기업 가치와 혜택을 진솔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두산중공업은 기업PR광고 외에도 지구에 깨끗한 물을’이라는 별도의 공익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하루에 깨끗한 물 20리터만 있으면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해마다 2백만명의 어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환한 미소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새광고] SK주유소, 내가 살아가는 힘, SK 캠페인 전개



빨간모자 아가씨로 잘 알려진 SK주유소 광고캠페인이 스포츠인, 가수, 탤런트 등 각 분야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는 스타를 모델로 캐스팅하고 새롭게 교체한 광고캠페인이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SK주유소의 광고캠페인은 '내가 살아가는 힘, SK'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스타들이 각각 자신의 생활 속에서 주유소를 통해 힘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광고 모델로 출연한 인순이, 명세빈, 이봉주, 팝핀현준은 SK주유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가수 인순이 편은 콘서트 준비로 밤늦게까지 연습 후 주유소에 들러 늘 지켜봐 주는 팬들의 성원에 힘을 얻게 된 경험을 보여준다. 최근 신혼생활에 폭 빠진 탤런트 명세빈 편은 짝박한 스케줄

로 인해 지치고 바쁜 생활 속에 잠시 들른 주유소에서 깜빡 졸았던 경험을 보여준다.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3년 만에 광고에 등장했다. 제주도로 떠난 가족여행길에서 아들과 다정한 한 때를 보내던 중 SK주유소에서 응원의 힘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팝핀댄스지존 팝핀현준'은 솔로 데뷔에 맞춰 자신의 곡 'Don't stop'을 SK주유소 광고 속에서 불러 화제가 되고 있다. 밤샘 연습에 지친 상황 속에서도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신의 열정적인 댄스로 화답하는 프로의 모습을 담았다.

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는 '새 광고캠페인은 주유소가 기름만 채우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에너지(힘)를 채워가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새광고] 두산인프라코어, 기업PR 굴삭기 랩을 한다고?



최근 방영중인 두산인프라코어의 새로운 기업PR이 눈에 띄는 크리에이티브 기법과 귀에 익숙한 랩 송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헤이, D 인프라가 뭐가?'라는 메시지로 첫 기업 PR 광고를 선보인 인프라코어는 이번 2차 광고에서 인프라코어가 세계 곳곳에서 하는 일을 설명하며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광고 내용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첫 글자인 'D'가 내 이름은 D, 세

상을 바꾸지"라고 랩을 하며 본인 소개를 하면 다른 랩퍼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고 묻는 형태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D는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를 바빠 뛰어다니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자세히 소개한다. 중국의 건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제를 일으키는 D, 미국의 자동화시스템 파트너로 미국의 세계 주도를 가능하게 하는 D, 유럽의 물류 파트너로서 유럽 경제 부활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D의 모습을 빠른 비트의 랩을 통해 알려준다.

[새광고] 하나은행, 프랑스의 거장, 레이노 작품 국내 광고에 등장



현대 조형미술계의 프랑스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67세, Jean Pierre Raynaud)의 작품이 국내 광고에 등장한다. 이번 레이노의 '빅 플라워 팟(Big Flower Pot, 큰 화분, 줄여서 빅팟, Bigpot)' 작품이 선보이는 광고는 하나은행의 CMA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PMA 상품 하나은행 빅팟' 통장 광고이다.

이번 빅팟' 광고는 현대 조형미술작품을 광고에 그대로 쓴 국내 최초의 시도로서, '에드아트(Ad-Art)'의 장르를 새로 열었다. '에드 아트'란 예술작품의 예술성을 침해하지 않고, 실제 예술작품을 그대로 광고에 등장시켜 촬영한 방식을 말한다. 이번 광고에서 레이노가 직접 광고에 삽입해달라고 보내온 메시지는 "L'Art est la richesse de ma vie(아트는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한다)"로, 현재 선보이는 인쇄광고에 모두 삽입되어 있다. 이번 광고의 레이노 작품은 강렬한 레드 컬러의 대형 화분으로, 1963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웹툰의 이상진 기획8팀장은 "예술작품을 광고에 접목한 에드아트(Ad-Art)' 기법은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의 기능을 넘어서, 광고를 감상' 할 수 있게 하는 주목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술작품의 고급스러움이 브랜드에 연결되는 장점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새광고] 대우증권, 대우증권의 자산 네트워크는 다르다



대우증권의 새 광고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가진 사람일수록 시장 상황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련되게 차려 입은 여자가 여러 마리의 개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탓에 개들은 이리저리 제멋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반면 건너편의 한 남자는 나란히 줄을 맞춘 백색 아프간하운드 7마리와 함께 여유 있게 산책을 즐기고 있다. 당신의 자산,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집니다. 대우증권 자산네트워크'라는 메시지와 함께 CF는 마무리 된다.

어렵기만 한 '자산관리'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 이번 CF에서는 남들이 좋다는 따라하기식 투자, 나열식 상품 가입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편,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에는 그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함을 쉽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우리아우라필름, 한국 베스트 프로덕션 선정



미국 푸르덴셜 본사로부터 한국내 제작프로덕션 파트너를 의뢰받은 뉴욕의 프로덕션 에이전시 Apartnership은 한국내 프로덕션 20여 회사의 감독 포트폴리오를 받아 뉴욕의 유명 아트디렉터들과 심사한 결과, 아우리아우라필름을 한국의 베스트 프로덕션으로 선정하였다.

신중현 아우리아우라 감독은 '대표적인 포스코 기업PR 이나 그